

## 11. 구주가 오실 인간 계통을 예언함

2012. 3. 11.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주께서 어떤 길로 오실 것인지 예언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창9:26,27] 또 가로되 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썸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 이 아벳을 창대케 하사 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1.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속죄와 생명 길에 대한 초기 예언들을 살폈습니다. 에덴동산 동편에 설치해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성소의 원초적 모습이고 사람은 속죄제를 드릴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구주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하와에게서 그렇게 빨리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인의 출생과 그의 불신을 통하여 암시하셨다는 말씀까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뒤로 이어지는 예언적 말씀들을 계속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더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답: 예, 그런데 그 이야기 더 길게 할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사건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4:7인에 성경에 죄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합니다. 사실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죄를 단어가 직접 기록된 것은 창4:7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는 하타트이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것은 화살이 과녁에서 빗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망이 되었으니까 과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가인이 빗나간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빗나간 존재는 사망의 존재라는 뜻이 되겠지요. 아담부터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를 믿는 믿음을 속죄제를 드림으로 확증할 때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보증을 얻는 것이며 산 자로 간주되게 하셨는데, 그 산 것이 확증되는 것은 부활할 때 이루어지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신 사실을 보여주지요.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 그대로 하타트인데 속죄제를 드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가인의 사망이 구주로 말미암아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가인은 아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벨은 그렇게 하도록 권고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산 자가 되는 도리라는 것을 자세히 말했겠지요. 사단의 충동을 받은 가인은 오히려 권하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람의 첫 죽음입니다. 그동안 제물이 된 동물이 많이 죽었겠지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아벨이 처음으로 육

체의 생명을 잃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이런 논리가 아니었을까요?

## 2. 아벨을 죽인 사건에 가인의 어떤 논리가 있었겠습니까?

답: 모든 사건은 정리는 안 되었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논리가 배후에 있지요.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일3:12]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찜 연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의로운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요. 아벨을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일종의 감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죽은 자가 감사해도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가인은 아벨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산 자로 여김을 받지만, 자기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로 간주된다는 아벨의 논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가인이 격분하지 않았을까요?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제사도 드렸는데, 죽은 자로 취급하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그럼 너는 정말 산자인가? 그러면 너는 안 죽는가? 그럼 안 죽는가 보자. 이런 논리로 동생을 죽였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날도 가인의 논리는 여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말을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믿음생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 걸요 라고 말하면 네나 잘 믿으라 하지 않겠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지요.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말인 안식일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지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아닌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가인의 길을 걷는 신자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자주 자기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길인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고 아벨에 대하여 물었을 때, 그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대답했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가인은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면서 그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푸념했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가인을 만나서 죽일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라야 가인의 동생들이었을 것인데 가인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이런 걱정을 했을까요?

답: 사람들이 가인의 이 말을 몹시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이 짐승처럼 많이 창조되었는데, 그중에 아담을 골라서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했고 나머지는 다 짐승 같은 사람인에 가인이 이 사람 같은 짐승을 두고 한 말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다 사람의 추측이지요. 성경에서 그 답을 올바르게 찾는 것이 마땅하지요. 가인은 아직도 요즘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 그 두뇌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비록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직도 탁월한 상태였을 것이고 이제 겨우 아담에게서 한 대를 내려왔으니 뛰어난 두뇌는 여전했을 것입

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 사건이 있는 직후에 누구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까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 700, 800살 이상을 살 것인데, 자기가 한 200, 300살이 되었을 때 만나는 사람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 것이지요. 가인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명석했을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사람에게 살인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증했습니다. 그것이 표를 준 것인데 어떤 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신 것은 확실하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며 가인이 아벨 죽인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6계명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취급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적인 시여 자이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지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은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 가지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 회수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영생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명이라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5.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지요? 그런 사건에도 구원의 복음이 담긴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까?

답: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때에 연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벨이 죽고 셋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에는 13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도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표현입니다. 그 역시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4장 마지막 두 구절 25,26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구원의 섭리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셋은 대신한다는 뜻이고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연약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사람은 대신하여 연약하여진 사람이 낳다고 할 수 있지요. 셋은 아담을 대신하여 사망이 되시는 구주를 표상하는 예언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면 구주는 죄가 들어오기 전의 신체 상태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죄가 들어온 후에 약하여진 신체 상태로 오실 것이라는 암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 이름들에는 충분히 구속 사건을 예언하는 복음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두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셋과 에노스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정기적으로 예배했다는 뜻이고, 둘째는 가인의 후손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것을 조롱하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어느 시대든지 진심으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는가하면 그들을 조롱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하지 않습니다.

6. 이런 사건이 있는 후에 노아 때에 홍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예언적 사실이 있는지요?

답: 노아 홍수는 마지막 심판의 사건적 예표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지요. 벵후3:5~7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세상의 상태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마24:37~39)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확실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역사적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무렵의 이 세상의 형편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7. 그러면 그 사건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역사적 때에 세상의 사회상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심판의 상태를 예언하는 것입니까? 또는 심판의 결과를 가르치는 예언입니까?

답: 그 모두라고 해야 하겠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세에 세상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상태가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신 셈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기록된 노아 시대의 사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때의 상태 전반적인 것이 예언적 사건이지요. 이것은 창1:1의 성경 읽기 지침에 종말론적 시각으로 읽으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로 멸망했지만, 그것은 결과에 대한 것이고, 그렇게 된 사정은 창6:11~13에 기록되어 있지요. 목사님이 읽으시겠습니까?

[창6:11~13]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때의 인간 사회의 형편은 패괴와 강포, 즉 부패와 폭력이 특징적 현상입니다. 패괴는 부패라는 뜻의 어려운 한자말이지요. 강포는 폭력입니다. 이것이 노아 당시 사회상인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도덕의 문란과 폭력이 위험 수위에 처했다고 하지 않나요. 아직도 어린 학생들의 폭력이 조직폭력배 수준이라고 한 어떤 경찰의 말을 신문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한국의 현상만이 아니지요. 청소년들의 이런 부패와 폭력은 세계적 현상이 아니겠어요. 영화, TV 프로그램, 컴퓨터에 뜨는 웹사이트 내용, 게임 등등. 모든 것이 그런 부패와 폭력을 부추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 가증한 것을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심7:26) 당시에는 우상이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가증한 것이 된 것 같네요. 저는 이미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 때이지만, 목사님이나, 아직도 유년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성경의 이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집에 가증한 것을 들이지 않도록 울타리를 잘 쳐야 할 것 같네요.

8. 당시에는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갔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그만큼 적을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가 있는지요?

답: 글썄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이 예언적이지만 방주에 들어간 숫자까지 예언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상당히 않았겠어요. 그렇게 큰 배를 짓는데 노아의 식구들만 일했을까요. 아니지요. 많은 일꾼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의 미련함을 속으로 많이 비웃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많은 일꾼들은 방주를 만들며 임금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만든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일은 많은 의미를 암시적으로 가르쳐주지요. 또 방주기 완성되면 들어가리라고 결심한 사람들 중에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이지만 그당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방주는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당시에 생명을 위하여 방주 안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그 생명을 영원히 보전하려면 예수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주의 예언적 의미이지요.

9.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어떤 예언적 뜻이 있습니까? 그냥 천연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까?

답: 무지개는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는 것인데요, 비가 내린 후에 천연계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사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과 관련된 것으로 계시됩니다.

[사54:9,10]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보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와 말이니라.

이 말씀은 노아와 맺은 언약은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용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지요. 무지개 언약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을 하늘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이지요. 무지개 언약은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베드로가 홍수와 역사의 종말에 있을 불로 나타날 심판을 연결시켰는데,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의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적 의미들을 찾을 수 있지만 구원의 언약의 확실성을 나타낸 것만 말합니다. 천연계에 나타내시는 현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10. 노아 기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한 사건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까?

답: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해야 할 중요한 사건으로 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의 어떤 측면을 가르쳐주시려고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명합니다.(엡 5:18)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존절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일에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었지요. 노아가 함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아마도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를 감동하시고 세 아들의 미래를 알도록 했겠지요. 그때 노아는 세 아들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 예언 중에 구주께서 누구의 계통으로 오실 것을 가르쳐는데, 곧 셈의 계통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지만 결국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함이 잘못했는데 노아는 그의 아들 곧 자기 손자 가나안의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구주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도록 섭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허물을 통하여서 구주의 필요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인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집안에 가증한 것을 들이지 않게 하시며 오직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영생의 약속 안에 신실하게 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